

혁신도시 주민들 보상가 불만

2년간 소득 입증 못하면 평균소득 3분의 1로 낮춰 영수증 처리 못한 과수농 “비현실적 보상규정” 비난

다음달 8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공식이 임박한 가운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지난 2년간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 과수 재배농가들은 턱없이 낮은 농업 보상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수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근거자료 제출을 전제로 농가 평균 단위면적당 2년간의 총수입을 합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던 과수농가들은 농진청 고시평균 소득액인 m당 6천370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72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 주민보상대책위(위원장 김춘식)는 이처럼 보상 규정이 변경되면서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280여 과수농가들이 50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수재배 농민들은 “농촌에서 누가 영수증을 받고 거래하겠느냐”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규정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3㎡당 평균 15만2천원으로 책정된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과수 보상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도 “일부 작목의 경우 토지공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주민들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환기자 chjung@

‘삼지구엽초 광어’ 양식 성공

완도 약산 광어축양장 박관철씨 ... 日 수출

성장 빠르고 육질 좋기 비린내도 전혀 없어

한약재인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추출액으로 광어 양식에 성공했다.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에서 광어 축양장을 하고 있는 박관철(54·현창수산)씨는 최근 ‘삼지구엽초 광어’ 양식에 성공해 일본에 20t(4억원)을 수출했다.

박씨는 약산도 삼문산(397m) 명물인 삼지구엽초의 추출액을 사료와 혼합하는 새로운 양식 기술을 개발했다.

삼지구엽초 사료를 먹인 광어는 성장이 빠르고 뼈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육질이 쫄깃하고 비린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병(魚病)에 강해 환경 친화적인 양식을 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녹차를 사료와 배합해 키운 ‘녹차 광어’도 개발, 일본 바이어들의 좋은 반응 속에 지난해 5억원 상당의 광어를 일본에 수출했다.

박씨는 과일생산과 이상기온 등으로 적조가 매년 발생, 양식 어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양식 비법 개발에 나서게 됐다.

삼지구엽초는 한줄기에서 가지가 세 갈래로 뻗고 거기에 잎이 세 장씩 돌아 잎이 모두 아홉 장이 되는 여러해살이풀로 강장(强壯)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삼지구엽초를 먹인 광어를 웰빙 브랜드화해 국내 판매는 물론 일본으로의 대량 수출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대한항공 여수 항공편 감축 운항

대한항공이 여수 항공편 일부를 감축할 계획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동계 항공편 조정 계획에 따라 여수공항을 오가는 총 10편 중 김포발 오후 3시와 여수발 오후 4시30분 등 2편을 감축하고, 일부 시간대를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운항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으로 오전 10시30분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9시로 바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오전 8시40분 출발편과 겹치면서 오전 10시대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 여수지점 관계자는 “국내선 적자가 누적돼 일부 항공편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중공 이후에도 개점휴업상태였던 영광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주민들과의 극적인 합의로 정상 가동된다. 주민 대표와 협의서를 교환하고 있는 신창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사진 왼쪽).

목포·여수 등 5개 지역 도시가스 비용 조정

목포와 여수 등 전남도내 5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조정됐다.

전남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13.7원 내리고 목포·순천·화순지역은 소폭 인상하며 나주지역은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했다.

이번에 조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기본요금을 동결한 뒤 올해부터 새로 변경된 비용 산출 방식에 따라 발생한 평균 인상요인이 4.75원/m에 이르지만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3.53원/m만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목포·무안지역이 132.17원/m로 2.91원 인상됐고 여수지역은 92.23원/m으로 13.7원 인하, 순천·광양지역은 82.69원/m으로 4.12원 인상, 화순지역은 119.97원/m으로 3.58원 인상, 나주지역은 116.39원/m으로 동결됐다. /홍행기자 redplane@



장흥 친환경 쌀 ‘적토미’

웰빙 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적토미(赤土米)가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들녘에서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적토미는 이달 말께 수확해 일반 벼보다 월등히 비싼 80kg당 200만원에 출하된다. /위정기자 jrwi@

주민과 극적 합의 영광 쓰레기처리장 가동

재활용품 등 하루 30t 처리 능력 갖춰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던 영광군 쓰레기 처리장이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1일 재활용품 10t과 생활쓰레기 20t의 처리 능력을 갖춘 이 처리장은 영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영광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지난해 12월 흥농을 성산리에 완공했으나 주민들이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가동되지 못했다. 군은 주민들과 향후 10년간 100억

원대의 주변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인근에 골프장 유치에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체결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종합처리장의 소각 및 매립시설에 최첨단 공법이 도입됐고 완벽한 차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암군 신북 농민회 농약 빈병 수거 판매

영암군 신북면 농민회가 지난 5일 1년 동안 수거한 농약 빈병 482kg을 한국 환경자원공사에 판매했다. (사진)

농민회는 올해 중점 사업의 하나로 농약 빈병 모으기를 추진해 왔다.

박진원 회장은 “농약 빈병 수집은 환경오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올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1석3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며 “내년 부터는 회원 300여명 전체가 참여하는 농약 빈병 모으기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김한범기자 hnkim@

“총무과장, 직원 투표로 뽑았어요”

해남군 개청 이래 처음

해남군이 6·7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장 적임자를 뽑는 ‘깜짝 투표’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일 6·7급 직원 240명이 모인 자리에서 26명의 총무과장 후보자 중 적임자 1명을 적어내는 투표를 실시했다.

정확군 군수대행은 “총무과장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전격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인사와 관련된 투표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신망도 높고 능력도 갖춘 인사가 총무과장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슬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원 공상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에너지, 난방비 절감에 힘입어 1/3로 줄었다

한정수령 예의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1. 100% 무상 지원금
2. 100% 무상 지원금
3. 100% 무상 지원금

TEMPIA
011-995-4122, 080-701-7117

‘폐식용유를 경우로’ = 바이오디젤 제조기

전남지역 대리점 모집

BIOKIT 바이오키투(주)